

[1-2] 의견의 뜻 알기

교과서 212~219쪽

학년 반 번 이름:

※ 「오성과 한음」을 읽고 인물의 입장이 되어 의견을 이야기해 봅시다.

(1)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.

- _____이란 글쓴이나 인물이 어떤 대상에게 지니는 생각이다.
-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는 의견을 뒷받침 하는 _____을 함께 말해야 한다.
-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사람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.

(2) 「오성과 한음」에서 자신이 각각 ‘옆집 하인’, ‘오성’, ‘권판서 대감’의 입장이 되어 의견에 대한 까닭을 써 봅시다.

	<p>그건 우리 감이에요. 왜냐하면</p>
<p>옆집 하인</p>	
	<p>그 감은 우리 것이네. 왜냐하면</p>
<p>오성</p>	
	<p>음, 그야 너희 감이지. 왜냐하면</p>
<p>권판서 대감</p>	

[1-2] 의견의 뜻 알기

교과서 212~219쪽




학년 반 번 이름:

※ 「오성과 한음」을 읽고 인물의 입장이 되어 의견을 이야기해 봅시다.

(1)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.

- **의견**이란 글쓴이나 인물이 어떤 대상에게 지니는 생각이다.
-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는 의견을 뒷받침 하는 **까닭**을 함께 말해야 한다.
-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사람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.

(2) 「오성과 한음」에서 자신이 각각 ‘옆집 하인’, ‘오성’, ‘권판서 대감’의 입장이 되어 의견에 대한 까닭을 써 봅시다.

 옆집 하인	<p>그건 우리 감이에요. 왜냐하면 ㉠ 담장으로 넘어온 가지의 낙엽은 우리가 치우고, 감은 우리 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.</p>
 오성	<p>그 감은 우리 것이네. 왜냐하면 ㉠ 감나무의 뿌리가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 재산이기 때문이야.</p>
 권판서 대감	<p>음, 그야 너희 감이지. 왜냐하면 ㉠ 네 손이 내 방에 들어왔어도 그 손과 네가 입은 옷은 네 것이기 때문이야.</p>

오성과 한음

어느 날 아침, 한음이 오성의 집에 놀러왔습니다. 오성의 집 마당의 큰 감나무에는 빨간 감들이 탐스럽게 열려 있었습니다. 이 감나무 가지는 담 너머 옆집인 권 판서 댁까지 뻗어 있었습니다.

“야, 저 감 참 맛있겠다!”

한음이 담 너머에 있는 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. 오성은 한음의 마음을 알아채고 감을 따려고 했습니다.

“우리 집 감을 왜 허락도 없이 따려고 하시오?”

옆집 하인이 말했습니다.

“무슨 말인가? 우리 감나무에 달린 감이야.”

“도련님 댁 감이라고요? 그건 우리 감이에요. 보시다시피 우리집으로 가지가 넘어왔잖아요,”

옆집 하인이 그쪽으로 넘어간 감나무 가지를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며 감을 따지 못하게 했습니다.

“그런 경우가 어디 있나? 그 감은 우리 것이네. 아무리 담 너머로 가지가 넘어갔어도 감나무는 우리 집에서 심고 가꾸었기 때문이야.”

오성은 어이없다는 듯이 옆집 하인에게 말했습니다.

“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?”

오성과 한음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습니다. 갑자기 한음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.

“좋은 생각이 났어.”

“그래? 뭔데?”

오성은 한음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. 두 소년은 오성의 옆집에 사는 권 판서 댁 하인을 앞세우고 가서 대감이 있는 사랑방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.

“밖에 누가 왔느냐?”

인기척을 느낀 권 판서가 물었습니다.

“대감님, 저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.”

오성은 창호지를 바른 방문 안으로 팔을 쑥 들이밀었습니다. 책을 읽고 있던 권 판서는 방문을 뚫고 들어온 팔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

“이웃에 사는 오성입니다.”

오성은 손을 들이민 채 권 판서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.

“대감님, 지금 이 팔이 누구 팔입니까?”

“그야 네 팔이지, 누구 팔이겠느냐?”

“지금 이 팔은 방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?”

“방 안에 있다 해도 네 몸에 붙었으니까 네 팔이지.”

권 판서는 오성의 당돌한 질문에 호기심을 느꼈습니다.

“그렇다면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. 저 담 너머 감나무에서 뺏어 나와 이 댁에 넘어온 가지는 누구네 것입니까?”

권 판서는 오성이 무엇 때문에 방문을 뚫고 팔을 들이밀었는지 그 뜻을 금방 깨달았습니다.

“음, 그야 너희 것이지. 우리 집에 가지가 일부분 넘어왔어도 나무의 뿌리는 너희 집에 있지 않느냐?”

“그렇다면 왜 이 댁 하인들이 저희에게 감을 못 따게 합니까?”

“우리 집 하인들이 생각이 모자랐던 것 같구나.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마.”

그리하여 오성과 한음은 잘 익은 감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.